

종단소식

조계종

식을 병행한다.

진각종

화엄사 교구종회 개최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는 16일 교구종회 및 말사주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일사 송년인연 법회

대구 안일사(주지 종운)는 13일 포교인 천불법당에서 '97 송년인연법회를 병행했다.

태고종

종단간부 총무위원 회의

총무원(원장 인국)은 24일 오후 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단간부 및 총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단발전을 위한 특위와 종헌준비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종단발전기금모금운동의 전개방안도 논의된다.

금담스님 영결식 엄수

9일 임적인 종회의장 금담스님 영결식이 13일 제주 보림사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추도독법, 육성독을 청취, 행상 보고, 영결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법륜사 겨울불교학교 열어

법륜사(주지 철화)는 20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열었다.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불교학교는 훗날의 식, 교리퀴즈대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탄신 법요식

총무원(원장 운덕)은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87주년 기념법요

창작교성곡 '희담' 발표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1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창작교성곡 '희담' 발표회를 열었다.

진각종 창종주인 회담 손규상 대종사의 일대기를 음악대서사시로 표현한 이 공연의 지휘는 장한업교수(영남대)가 맡았으며, 경북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

서원가 CD출판 법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5일 진선여고내 회담기념관에서 서원가 18곡이 수록된 CD출판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해일 종회 회장, 진선여중 권영옥교장, 진선여고 이종원교장, 서원지구스승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승종

안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총무원(원장 일오)은 10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재소자 위문법회를 병행했다.

총무원장 일오스님과 종단간부 등 10여명은 이날 재소자들과 함께 법회를 갖고 이들에게 <천수경> 5백권을 법보시했다.

일오스님은 "재소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천수경>을 법보시했다"고 말했다.

미타종

내년예산 3억 확정

중앙종회(의장 해봉)는 1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19회 중앙종회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3억7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또 포교당을 마련, 내년종으로 총무원사를 이전하기로 하는 한편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종단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해맞이 법회' 새싹행 정착

낙산사 만등불사 촛불제 행사  
향일암 음악회·영화제 '다재'



◇양양 낙산사는 지난해부터 해맞이 법회를 병행했다. 해맞이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새해 소망을 발원한다.

새해 첫날 사찰을 찾아 수행하고 일출도 보며 소망을 발원해 보자. 해맞이 법회는 세모의 밤 참회정진을 시작으로 타종, 원단여불, 해맞이 법회로 장장 1년짜리 법회가 회향된다. 80년초 경주 부처님마음과 향림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해맞이 법회는 최근들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다. 양양 낙산사, 여천 향일암이 지난해부터 일출제를 개최하고 해돋이로 유명한 바닷가 사찰들이 철야기도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맞이 법회는 수행, 불교문화제, 일출조망 등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낙산사(주지 지홍)는 31일부터 98년 1월 1일까지 '해맞이 축제'를 갖는다. 이번 법회에서는 소망상취 촛불밝히기, 범종타종식, 해맞이 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비롯 흥원암에서는 철야정진기도법회가 진행돼 수행

토함산 각 사찰 참회기도  
보리암·상원사도 개방

을 겸해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제격이다. 여천군 향일암(주지 종삼)도 여천군과 공동으로 31일부터 98년 1월1일까지 '향일암 일출제'가 병행된다. 이번 일출제에서는 원단여불, 일출시낭송회 등을 비롯 송년음악회, 야외영화제 등이 진행된다. 가족단위 해맞이 명소를 각광을 받고 있는 경주 토함산일대에서도 다채로운 법회가 마련된다. 부처님마음(총장 도문스님)은 남산 천통사에서, 향림사(주지 법명)는 기림사와 골골암 일대서,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은 원효사와 석굴암에서 각각 송년참회기도와 해맞이 법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도처로 유명한 남해 보리암, 강릉 등명락가사, 서산 간월암, 지리산 법계사, 오대산 중대 등도 철야기도와 함께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근 기자>

거조임 영신전 6백년만에 중창  
526나한 이운...매월 7일 만발삼중 공양

영신전(국보14호) 보수를 위해 나들이 갔던 5백나한이 귀가했다. 정해결사도량이며 5백나한 기도도량인 경북 영천 팔공산 거조임(주지 해해)은 14일 영신전 및 나한좌대불사 회향법회를 병행하고

고려이후 6백여년만에 영신전을 중창했다. 4일부터 나한을 하나씩 가마에 태워 영신전으로 이운하기 시작한 거조임은 14일 나한좌대를 끝으로 5백26위의 나한을 모두 영신전으로 이운했다.



◇거조임은 14일 3년여간의 영신전보수공사를 마치고 5백26위의 나한을 이운, 회향법회를 병행했다. <영천=이윤호 기자>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행사

법정스님 평화신문에 성탄메시지 발표

이해인수녀 불교방송 출연 법담 나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스님이 성탄축하메시지를, 수녀가 불교방송에 출연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이 21일 자 평화신문에 성탄메시지를 발표하며 이어 이해인수녀가 25일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집집을 벗고 새롭게 움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인수녀(부산 성베네딕트수도회)는 25일 방송되는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프로그램에 출연, 진행자 진명스님과 함께 수행활동, 종교음악, 성탄의 의미를 비롯 종교간의 화합문제 등에 대한 법담이 오전 9시부터 1시간정도 진행된다. 또 이 시간에는 14·5세기 상가를 비롯 정통성기도 방송될 예정이다.

95년부터 불사를 주도한 주지 해해스님은 "요사채와 누각 선원불사까지 이룩하여 '5백나한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조임은 96년 11월 국비 3억원 등 총 10억3천5백만원의 불사를 시작, 10월말 공사를 끝내고 이날 회향됐다. 거조임은 매월 음력 7일 만발삼중공양을 올리는 나한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운영 가상대학  
동국대등 7개대서 신청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가상대학 프로그램에 동국대 등 모두 7개 대학이 신청했다. 컴퓨터, PC통신 등을 이용한 가상대학 시범운영대학에 동국대는 단독신청 형태로 교육부에 접수했다. 최종선발은 내년 2월9일 확정된다.

bbs BBS 감사패 받아  
이웃돕기 활동 공로

불교TV '자비의 천수천안'(PD 김오중 외)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PD 안희경)이 17일 한강성심병원 개원 29주년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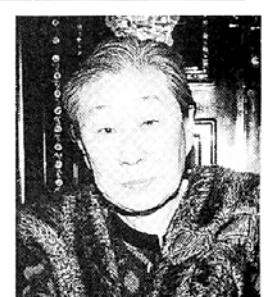
동화사 장일스님 입적

팔공산 동화사 내원장 선원장이자 전국 비구니회 교문을 책임진 도림당(道林堂) 장일(長一)스님이 11일 오후 11시10분 내원암에서 세수82세 법랍61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다비식은 14일 청해문도정(淸海門徒葬)으로 엄수됐다.

"뼈아픈 역사 교훈 됐으면..."

위안부기념관 건립비 1천만원 낸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기념관이 빨리 건립돼 커기는 우리학생들이 뼈아픈 과거를 알고 마음을 바로잡는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스님은 "차마 못받겠다. 좋은 웃도 사업이시고 맛있는 것 사 드셨으면 한다"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 나봉의 집(원장 해진스님)에서 살고있는 김복동(71세)할머니가 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할머니가 내놓은 1천만원은 '위안부 생활보조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등 발달 정부로부터 받은 25만원을 일제 무순 일 당할지 몰라 고스란히 모은 것. 김할머니는 부산에서 부두막

"정부서 받은 지원금 교박 모은것"

노동 식당일을 전전했으며 60세에 부산 대대포해수욕장에 5평남짓한 무허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었다. 지역에서도 '양산할머니' 하면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 몇년동안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병원근처에도 가지않았고

"부처님 도량에서 사니 기쁘고 더 바랄게 없어요. 스님처럼 젊고 학식있는 스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기에 사시겠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스님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김할머니는 14세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8년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김복동할머니는 내년 3·1절에 맞춰 개관할 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0347) 768-0064)하는 모방으로 뛰고 있는 해진스님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했다.

김할머니는 "웃도 안사이고 어렵게 모은 돈이지만 의미있는 일에 쓰게돼 기쁘다"며 알려지지 않은 오해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할머니에게 걱정이 한가지 있다. 나봉의 집 원장인 해진스님이 건립기탁금을 계속 안받으려 하는 것.

광주=김원우 기자

예술인 법당이 상량식을 병행하고 사부대중들에게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행의 요람 예술인법당이 곧 회향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자연예인들의 신행의 요람이 될 예술인 법당이 지난 11월11일 대웅전 상량식을 병행하고 그 장엄한 위용을 불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작부터 難産을 거듭한 예술인 법당은 그간 교계내외의 온갖 억측과 소문 비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법당 불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의 환혼 두분의 보시는 오늘의 대법당을 건립하는데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법당이 이곳 목동 본각사에 자리잡게 된 배경은 불자연예인들의 주활동 무대인 여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본각사 예술인법당은 공식법인체로 등록할 것이며 새로운 신행단체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불법홍포에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불자예술인 연합회에서는 1997년 11월경 불교계 신문에 실린 "예술인 법당 건립 폭리의혹"에 관한 기사내용에 대해 불의를 일으킨 점을 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보도로 그동안 방랑간담에 협조해 주신 교계 각사찰의 주지스님 중진스님들을 비롯한 계기불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협회 회원 여러분 및 일부연예인 불자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면을 통해 거의 황사에 협조하신 불자들에게 알린 것은 상구 판매 과정에서 할부유동과장상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법당불사금과 자비실천비용에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합회를 모방한 유사단체들이 교계내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연합회에서는 그 단체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야 향후 그 단체들이 연예인 법당을 앞세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한다면 전처의 전장을 규명 사법조치도 불사할 것이며 아울러 거의 불자예술인연합회에서는 이후 사찰을 찾아 스님 및 신도님들에게 법당건립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일체 청하지 않음 것 입니다. 그동안 옥성구 구입으로 방랑 간담에 시주하신 신도님들께서는 예술인법당 회장을 앞당기는 뜻에서 대금불입에 최대한의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 연합회는 사단법인체로 등록후 예술인 법당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음 홍포에 선행장 역할을 하는 실행단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